

최재성 파동 확산...野 신당 논의 가속화

비주류 “文, 사무총장 강행은 친노 진영의 선전 포고” 반발

이종걸 원내대표 당무 거부...신임 당직자들도 최고위 불참

“우리가 현실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강행에 대해 당 내외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당장, 비노 및 비주류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통합과 화합을 위한 당직 인선이 오히려 분란을 초래하면서 혁신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사무총장 인선 파동이 결과적으로 ‘신당’ 논의의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사무총장 파동 확산=24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불참했다. 문 대표의 사무총장 인선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당무를 거부한 것이다. 여기에 김관영 수석사무총장이나 박광온 비서실장 등 ‘임명장’을 받아야 할 신임 당직자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수석 대변인에 선임된 것으로 알려진 김영록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표에게 사의의사를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승용, 정재래 최고위원이 지도부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유승희 최고위원까지 불참, 최고위 기능 자체가 마비됐다. 실제로 이날 지도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케팅을 진행하고 차례로 현안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지만, 회의는 내내 결투기만 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재성 신임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했지만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취임 인사말까지 생략한 채 짜투리 표정으로 앉아있던 그는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잘 하겠다”고만 짧게 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

도부가 유임한다는 방침이나 비주류 측의 반발이 거세진다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비주류 집단 반발=당내 비주류 진영에서는 문 대표의 사무총장 인선은 사실상 친노 진영의 ‘선전 포고’로 보고 있다.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로 총선까지 당내 주도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비노 및 비주류 진영이 조직화가 취약한데다 탈당의 명분과 현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계산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노 진영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분당의 빌미를 주지 않는 인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실망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주승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가 친노를 대표하는 상황에서 공천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도 친노에 맡겼다. 친노 패권주의 정산에 역행하는 인사”라고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박영선 의원은 “당의 에너지를 흠여지게 한 인선”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김부겸 전 의원도 “여전히 분열의 미몽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주류 진영의 집단 반발 분위기도 감지된다. 비노 진영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회원들은 조만간 회동을 갖고 사무총장 인선에 대한 공개 비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표에게 통합의 인선을 주문했던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곤혹스런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신임 사무총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굳은 표정으로 대정부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野 “대통령 메르스 사과해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정부 허둥지둥 대응 질타

국회의 2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 사태에 정부의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허둥지둥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지적한 가운데 여당은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으나 야당은 공세의 초점을 박근혜 대통령에 맞추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메르스 초동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안전처가 발족한 지 8개월째가 돼도 큰 변화가 없고 안전처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며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메르스 사태가 1년 전 세월호참사와 어찌 그리 닮았다. 국민이 위기에 처해 있고 불안과 공포에 빠졌는데 어디에도 국가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

민 답하나 기자회견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지도력이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재난안전 총괄 임무가 있는 안전처가 감염병이 돌아도 방관만 했다는 건 허수아비 안전처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안전처가 인턴들만 모였나. 메르스는 한국형 무능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메르스 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격상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의 지적에 “규정에 의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경보 수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며 “사실상 심각한 계로 움직이고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메르스 타격 보성 회천감자 사잡시다”

새누리, 국회서 ‘직거래 장터’ 열어...500상자 판매 성과

메르스 여파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보성군을 위해 새누리당이 24일 국회에서 ‘보성 회천감자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메르스 피해 지역의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통해 식어버린 지역경제 되살리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군현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진전연석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메르스 피해지역 농산물 사주기 운동 행사’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성군 회천감자 10kg 들이 500상자가 판매됐다.

김 대표는 “(메르스 확진 환자) 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고 해서 전체 농산물이 안 팔리고 있다. 보성뿐 아니라 순창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다.

그는 “가뜩이나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경제에 이것(농산물 판매 급감)만은 우리가 막아야겠다고 생각해 1차로 보성 회천감자를 사드리도록 하겠다. 500 상자 가져왔는데 품질이 좋다”며 주위에 있던 의원과 당직자들에게도 적극 구매를 권유했다.

이에 이용부 보성군수는 “메르스 여파로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지역 경제가 정말 어렵다”면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주민이라는 이유로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고 화답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행사에 이어 26일에는 메르스 사태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평택지역의 블루베리 시식회 및 판촉행사를 개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행정-입법’ 충돌 초읽기...거부권 정국 격랑속으로

박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거론할듯

與 유승민 대표 선택 주목...野 “대어 투쟁” 불사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여야 정치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청와대는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거부권 행사는 거의 확실시된다.

거부권 행사 시기는 25일 국무회의가 유력하게 거론되며, 늦어도 30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정부특보를 겸임하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4일 KBS라디오에서 “개

정안은 명백히 위헌”이라면서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의서를 첨부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3가지다.

여야가 재의 절차에 합의해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가결 요건을 충족시키므로써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본회의는 열되 부결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야에 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 폐기”하는 것이다.

헌법(제53조)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60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법안 상정권한을 가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정해도 본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일단 새누리당 분위기는 ‘재의 무시’다. 재의 절차를 밟을 경우 여권의 분열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강경파는 “중재안을 반영해 위헌성이 해소된 만큼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수의 의견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5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1.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5. 6. 8(월) ~ 19(금)
- ② 전 형 일 : 2015. 6. 22(월) 오전 10:00
- ③ 합격자 발표 : 2015. 6. 24(수) 오전 10:00
- ④ 등록기간 : 2015. 6. 24(수) ~ 26(금)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음악학과(M.A.)

2.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00
		신학연구학과(M.A.T.)	00
		유아교육학과(M.Ed.)	00
		음악학과(M.A.)	00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0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원학과(M.A.)	00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투데이 경매

대인동 중심상업지역 유동인구많은 병원 카페 식당 적합 지하1층~지상4층 대지780㎡ 건물1993㎡
감정가24억7천 최저가13억8천

화순 금호타운아파트 남측 아파트 밀집지역 최고 상권으로 투자하기 좋은 건물 지하1층~지상2층 대지 424㎡ 건물 993㎡
감정가9억5천 최저가7억

운암동 대단리아파트단지 공실 걱정없는 우수상권 지하1층~지상3층건물 학원,PC방,독서실,카페 추천 대지532㎡ 건물796㎡
감정가8억5천 최저가5억9천

여수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아파트 정문 맞은편 위치한 준주거지 건물율70% 용적률240% 대지면적3230.2㎡
대형마트,할인매장 추천
감정가23억6천 최저가23억6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NAVER 7년 연속 단비플라워 농촌진흥청

단비플라워

축미와원3년 근조화원3년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